

■ 전진농업 현장 11 ■ 東永人蔘 대표 서영교 ■

“고려인삼 종주국의 명예를 되찾아야”



적이라며 과거 우리 조상들은 비료를 주지 않고 인삼을 재배했음을 강조하면서 후손들이 무지한 탓에 인삼에 비료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서영교 대표는 지난 27년간 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3만여평의 부지에 홍삼을 재배하고 있다(사진은 동묘리에 위치한 동영인삼밭).

부지는 많으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임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망경작에 나서야만 한다. 연천과 파주 등지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만평을 8단계로 나눠 풀러짓기를 한다는 것이다. 2-3년은 수도작을 하여 토양을 개선한 다음 다시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인간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악하게 피해를 입히고 눈물나게 해서는 안된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마음씨도 좋다”는 것을 경영철학으로 삼아 살고 있다.

서 대표는 파주, 연천, 포천, 화천 등지에서 지금까지 인삼을 재배해오던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지는 않았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 대표의 하루일과는 새벽 3시에 기상하여 몇 년전까지 8km를 달렸으나 최근에는 단전호흡 등 집안에서 운동을 가볍게 하고 4시에 사우나를 즐기고 5시에 들

어와 식사하고 7시에 발에 나가 일하고 돌아와 밤 9시에 어김없이 취침한다. 지난 27년동안 계속 해와 아이들은 일삼시계가 필요 없다. 몇시에 깨워달라고만 하면 된다.

농업진흥청 특작과 명예연구원, 고려인삼연구회 부회장, (사)한국인삼경작자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인삼재배 연구에 집중한 우수한 품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 대표는 한국농업전문대 학생들의 실습지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방편하여 직접 인삼재배 실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36)

서 대표는 앞으로 고려인삼 종주국이라는 명예를 살리기 위해 질 좋은 토양에서 인삼을 재배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세계적인 인삼명품이 포천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一己百(내 한 몸이 백 명의 일을 해야 한다)를 가훈으로 삼아 살아온 서 대표는 좌로나 우로나 일을 하고 있다. 포천인삼연구회장으로 활동중인 서 대표는 인삼을 좀더 잘 경작하기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에도 나서고 있다. 하늘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서 대표는 인삼 관련 기관의 경쟁력 확보로 고려인삼종주국의 명예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 제일24시간불가마사우나

남녀노소가 즐겨찾는 복합휴식공간



대표 민영이

바쁜 현대인들은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가가운 사우나탕을 이용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면서 풀고 있다. 사우나탕은 신부나 부에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겨 찾고 있는 공간으로 우리사회에 뿌리내린 자가 오래된 복합휴식공간이다.

물 자원이 풍부한 우리민족은 그로 인해 목욕 문화 발달과 청결한 생활습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소문난 민족이라고 한다. 이러한 우리의 정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우나에서 가족동반으로 휴식을 취하며 각종모임의 장소로도 일

이처럼 제일24시간불가마사우나는 각종 편의시설을 통해 고객들에게 양질의 목욕문화를 제공하며 모든 편의, 부대시설을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민영이 대표는 “다년간 변함없이 찾아오신 고객들의 도움으로 이 만큼 성장해왔다”며 “24시간 영업으로 접한 된지가 3년이 지나면서 사우나 풍습도 많이 바뀌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은 없지만 예전엔 수시로 집나온 청소년들이 학교에도 가지 않고 이곳에서 지내는 것을 알고 잘 타일러 부모님 결의로 돌려보내는 일도 많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정도 많았지만 이제는 사우나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어 누구나 편하게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우나업은 어느 직업 못지 않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 온갖 헤프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민 대표는 직원들에게 한가지 주문하고 있다. 바로 말조심! 그리고 “고객은 모두 평등하다”며 직원들에게 고객들을 언제나 변함 없이 평등하게 대해주라고 입버릇처럼 주문한다. 이 모든 것이 민 대표의 목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직원들에게 주문하는 것이다. 민 대표는 한때 부천에서 10년 동안 일식집을 운영해왔으며 연고하나 없는 이곳 포천에 처음 입성해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절실한 크리스찬인 민 대표는 힘을 때면 기도로 마음을 달

히말라야 소금 찜질방 이용으로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말끔하게

반화 되어있는 현실이다.

제일24시간불가마사우나(포천시 신읍동 171-3, 대표: 민영이)는 지난 95년 개장해 11년째 인근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의 대표 사우나탕이다. 제일24시간불가마사우나는 3년 전 내부 전체를 고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로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깔끔한 편의시설, 부대시설로 지역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부대시설 중에서도 특히 히말라야 소금찜질방은 히말라야산맥 지하 300m 소금광산에서 채굴한 소금광석으로 일반소금에 비해 결정체가 단단하고 미세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내 노폐물제거, 노화방지, 피부탄력, 비만, 혈액 작용에 효능이 월등하다고 한다.

또한 천연소금수용으로 호흡곤란이나 불쾌감이 전혀 없어 시중일과 인력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불가마로 고객이 제일 선호하고 있는 공간이다.

됐으며 이제는 포천이 고향처럼 포근하고 정겹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제일24시간불가마사우나는 지난 3월부터 본지 불우이웃돕기창구로 매월 동참하고 있다. 민 대표는 고객 1명당 100원씩을 적립해 모아놓은 돈을 관내의 불우한 학생, 불우한 이웃,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 값지게 쓰여지길 기대한 다음 후원하고 있다. 요즘엔 별도로 앞에 비치해 놓은 저금통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말쯤에 고객들이 모은 성금을 본지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지가 앞장서서 펼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창구개설이 보다 투명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취지가 좋아서 동참했으며 이번이 없는 한 계속 동참할 뜻을 밝혀 훈훈함을 더해주었다.

문의 (031) 536-0491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포천시 가구산업특화단지 육성한다

전국 홀스타인품평회 포천 최우수 수상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식

포천시가 가구산업 특화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지난 25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가졌다.



지난 25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은 포천시 화천면 지리현 일원에 1단계로 약 3만평 부지의 가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에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용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구단지는 현재 포천시가 추진중에 있는 영북지방산업단지사업과 연계되며 본격적인 가구산업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포천시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 가구산업연구센터의 포천시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구연구센터가 포천시에 유치되면 현재 추진중인 화천, 영북산업단지조성사업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시너지효과를 통한 사업성과의 극대화는 물론 전통 가구산업 기술개발 및 집중육성으로 포천이 가구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허병도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국내가구산업의 표준화와 디자

인개발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가구산업연구센터의 유치 등을 통해 포천에서 가구산업의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황영철 경기도제2청사 경제능정국장은 “정부차원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을 강조하고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한 임희동 포천·철원발전장은 “한 집안의 평가기준은 집안에 어떤 가구가 있는가이다. 포천시가 가구산업협동단지 육성으로 살림이 넉넉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에서 200만엔, 300만엔 하는 가구가 있듯이 포천에서도 수준높은 가구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5년 전국 홀스타인품평회에 참가한 포천시 홀스타인이 최우수 검정회상 및 부분별 최우수와 우수를 휩쓸었다.

2005년 전국 홀스타인품평회는 지난 12일과 13일 2일간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에서 12부문 150농가 180두가 출품되었으며, 6천여명의 낙농인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젖소개량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낙농가의 개량육 고취와 자발적 개량사업참여 유도를 위해 개최된 품평회는 젖소품평회 심사 및 경매, 기자재 및 축산물 전시회, 우수 소비자 홍보행사, 낙농관련 세미나 및 심사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협의회’ 개최

지난 14일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을 내린 가운데 포천시는 지난 20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방역지원본부와 수의사회, 농업기술센터, 축협, 가금류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방역상황실 운영, 조류질병 예방강화, 자율방역을 위한 농가지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실시요령 및 관련

단체간 협조체제 구축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 전담예찰차와 생산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류인플루엔자 초기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그물막 설치, 비닐포장, 생석회 도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포천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차 철거를 기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상황실(1588-4060)을 운영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제일24시간불가마사우나는 지난 1995년 개장해 11년째 인근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의 대표 사우나탕이다.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왕성실 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매입세액 중 1백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다고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명명내분」을 받았다.

왕성실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꼼꼼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할 테니 사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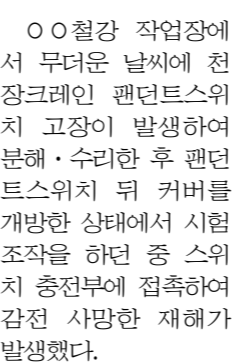
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나 세무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국제청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제정보서비스 중 조회와 계산사이트 안내 안에 있고「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크레인 팬던트 스위치 수리 중 감전사고



제일발생상황도

○○철강 작업장에서 무더운 날씨에 천장크레인 팬던트스위치 고장이 발생하여 분해·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뒤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하던 중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팬던트스위치 커버 개방상태에서 점검한 것으로 무더운 날씨에 근로자 신체가 땀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팬던트스위치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실시하여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다. 둘째, 절연용 보호구를 미착용한 것으로 팬던트스위치 시험조작 등 통전한 채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고무장갑, 절연화 등을 착용하고 절연판 위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팬던트스위치 고장수리 시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동체에 의뢰하여 수리해야 한다. 셋째, 하절기 감전재해를 위하여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고장수리 시 안전한 취급요령 및 절연용 보호구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